

하다못해

적어도, 최소한 ~라도

그것만이라도 충분했을 최소한의 것을 들며, 그것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. 부사이며 한 단어로 붙여 씁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품사	부사, 한 단어	하다못해 전화라도
주로 뒤에 오는 말	명사 + (이)라도	전화라도
나무람	... -았/었어야지	한 통 했어야지
차선택 제시	... -(으)세요	이거라도 가져가세요
유래	하다 못해	하는 것조차 못 하다
띄어쓰기	부사로 붙여 씀	하다못해 (하다 못해 ×)

■ 언제 쓰나요

이것은 어미가 아니라 부사이며, 절의 맨 앞에 옵니다. 다음 구성에서 유래했지만 한 단어로 붙여 씁니다: 하다 못해 — 하는 것조차 못 하다.

뒤에는 최소한의 것이 오며, 거의 항상 다음 형태와 함께 씁니다: -(이)라도: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 통 했어야지.

핵심은 그 최소한조차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나무람은 어조이며, 문장은 흔히 -았/었어야지나 반문으로 끝납니다.

두 번째로, 더 부드러운 용법은 차선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: 하다못해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— 이거라도 받으라는 뜻입니다. 이때는 비판이 아니라 너그러운 어조입니다.

■ 예문

- 1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 통 했어야지요.
- 2 하다못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있어야 하지 않나.
- 3 하다못해 이거라도 가져가세요.
- 4 하다못해 자리라도 지켰더라면 좋았을 텐데.
- 5 하다못해 부품 하나라도 직접 만들어 봐야지요.
- 6 하다못해 인사만이라도 하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.

■ 비교

(이)라도

함께 씁니다. (이)라도는 차선의 선택지를 나타내고, 하다못해는 그중 가장 최소한의 것을 말하겠다고 예고합니다.

전화라도 하세요. (전화라도 하라) / 하다못해 전화라도 했어야지. (그것조차 어려웠나?)

-다 못해

유래가 된 구성입니다. -다 못해는 한계를 넘어섰음을 나타내고, 하다못해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부사로 굳어졌습니다.

참다못해 소리쳤다. (참을 수 없었다) / 하다못해 전화라도. (적어도)

조차

조차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마저 없음을 나타내고, 하다못해는 그것으로 충분했을 최소한을 가리킵니다. 둘 다 최저선을 가리킵니다.

인사조차 없었다. (인사도 없었다) / 하다못해 인사라도 했어야지. (적어도 인사라도)

■ 주의

✗ 하다 못해 전화라도 했어야지.

○ 하다못해 전화라도 했어야지.

부사로 쓸 때는 한 단어로 붙여 씁니다. 띄어 쓴 하다 못해는 “하는 것조차 못 하다”라는 별개의 구성입니다.

✗ 하다못해 최고급 선물을 준비했어야지.

○ 하다못해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했어야지.

뒤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것이 와야 합니다. 거창한 것을 들면 단어의 뜻과 모순됩니다.

✗ 하다못해 전화를 했어야지.

○ 하다못해 전화라도 했어야지.

(이)라도가 가장 최소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지임을 나타내므로, 여기서는 함께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.